

3) 삼산이수(三山二水)

전통적으로 순천은 '삼산이수'의 고장이라 일컫고 소강남(小江南)이라 자부해왔다. 그래서 현제도 학교 이름을 그것으로 짓곤 한다. 그러나 왜 삼산이수의 고장이며, 소강남이라고 일컫느냐고 물으면 대답이 석연찮다. 어떤 문헌에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 또 삼산이수가 무엇을 지칭하느냐고 물으면 용당동에 있는 세 봉우리의 산을 삼산으로, 옥천과 동천을 이수로 지칭한다. 혹자는 인제산·원산·비봉산을 대기도 하고 혹자는 인제산·해룡산·진례산을 일컬으며, 동천과 이사천을 이수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연만하고 한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백(李白)의

삼산은 푸른 하늘 밖에 반쯤 지고

이수는 백로 섬에서 나뉘어 흐르네.

라는 시를 인용해서 중국의 강남 경치와 같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강남이라 불렀다고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흔히 있다. 한문을 많이 알고 모화사대사상에 젖었던 사람들이 살던 곳에는 이처럼 중국의 산이나 강, 마을의 이름들이 그대로 우리의 자연 경치에 붙여진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송광면 대곡리에서는 절강성(浙江省)의 엄자릉(嚴子陵)이 숨어 살던 부춘산(富春山) 경치와 비슷하다고 보성강(현지의 이름은 동강) 기슭의 산을 부춘산이라 부른다. 그러나 자고로 순천에 삼산삼호신인(三山三護神人)이 있다고 구전한다. 세 산에 순천을 보호하는 세 신인이 있다는 말이다. 『친증동국여지승람』의 인물편을 보면

후백제 김충은 견훤 아래에서 벼슬을 하여 벼슬이 인가별감에 이르렀고, 죽어서 순천부의 성황신이 되었다. 고려 박영규는 후백제 왕 견훤의 사위이다. ... 고려왕이 좌승의 벼슬을 하사하고 두 아들에게도 벼슬을 주었고, 죽어 해룡산신이 되었다. 박난봉은 죽어서 인제산신이 되었다.¹⁾

고 기술하였다. 성황신 김충, 해룡산신 박영규, 인제산신 박난봉이 세 수호신이고 이 신인들이 머물러 있는 산이 삼산일 것이다. 그러므로 삼산은 삼호신인의 사당이 있는 산을 지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친증동국여지승람』의 사묘(祠廟)편에 서술한 대로 성황사(城隍祠)는 진례산(進禮山, 여천시 상암동)에, 해룡산사(海龍山祠)는 해룡산(홍내동)에 있었으며, 박난봉의 사당은 인제산에 있었다. 그러므로 삼산은 해룡산·진례산·인제산이다. 해룡산에는 산사터가 있는데, 문충섭(文忠涉)의 말에 따르면 그 산에 있는 토성터가 견훤성이라고 한다. 순천여상 정문에서 바라보면 토성이 훤히 보인다. 1970년대까지도 오산 뒤 정상에는 토기편이 나뒹굴었고 그 정상에 기점으로 성의 잔해가 통천마을과 금성마을로 뻗어 있었다. 통천마을 사람들은 성 안에 있는 밭을 지금도 '서안밭'이라고 부른다. 1910년대에 기술했을 조준섭의 「망월정기(望月亭記)」가 『충평속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오산 뒤에 망월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견훤이 경상북도 상주 사람이라고 학계에 통설로 되어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순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국유사』에는 광주의 북촌 사람으로 지령이 탄생설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홍내동·대룡동 일대 주민들은 지령이 탄생설화를 이 해룡산성에 바탕을 두고 구연한다. 그리고 순천의 읍호(邑號) 가운데 사평·무평·모평들의 명칭이 있는데 교량동에 있던 사평 또는 무평(사라호 태풍으로 유실)마을이 읍호였을 가능성이 크다. 대대(大垓)란 지명도 이사

1) 『친증동국여지승람』, 인물.

천 하류가 백제시대에 읍거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흥내마을에는 1895년 을미개혁 이전까지 해룡창(海龍倉)이 있었고, 바다 건너에 해창(海倉 : 현재는 마을이름)이 있어 이 지방의 세곡(稅穀)을 조운(漕運)했던 곳이다.

인제산은 순천부의 진산(鎭山)으로 일명 건달산(建達山)이다. 옛 성터가 있으며, 인제동 마을을 중심으로 북쪽, 곧 성진아파트 뒷산을 통상 인제산이라 부르고 남쪽, 곧 한림아파트 뒷산을 남산이라고 구분해 부른다. 성진아파트 뒤 등산로를 오르면 성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봉우리 정상마다 망루를 세웠을 듯한, 편편하게 다듬어진 곳이 5~6군데 있고, 경사가 급한 쪽은 석축의 흔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토성이다.

산 정상에 등산로를 따라 한국방송공사 중계송신탑이 있는 봉우리(깃대봉)까지 성의 흔적이 군데군데 보인다. 그리고 인제동 마을에서 계곡 쪽으로 올라가면 길 가운데 바위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이 바위를 두꺼비 바위(뚝바구)라 부르며, 지금도 제를 지낸다. 거기서 상수도 취수장을 지나면 솔이 들어선 광장이 나온다. 이 광장에도 석성(石城)의 흔적이 있는데, 1970년대에 사람들이 정원석으로 무단 반출해서 지금은 볼 수 없다.

석성을 보았던 사람들의 구술에 따르면 군데군데 대를 쌓아놓았다고 한다. 지금은 용지(龍池)샘이 있어 등산객이 물을 마실 수 있다. 거기에 기왓조각이 뒹굴고 있는데 박난봉 장군의 사당터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강동원(姜東元)은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고 옛날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아들을 못 낳은 사람이 이 샘에서 기도를 하는데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샘에 은식기 두 벌을 띄워라. 그러면 아들 둘을 낳으리라.”고 현몽을 해 그대로 했더니 아들 둘을 낳았다. 그래서 거기에 절을 세우고 ‘마하사’라 이름했다는 설화가 있다. 그리고 어디쯤에 ‘불알바구’가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그 바위를 깔고 앉아 기원을 하면 성적 감흥을 일으키고 임신한다는 설화도 있다. 순천 토박이들은 이 산성을 박난봉 장군이 쌓았다고 말하며, 『항남약부』의 「인제산」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박난봉은 괴결한 영웅의 자태가 있으므로 이 땅의 군장이 되었다. 인제산(부의 남쪽 4리에 있다. 일명 건달산이라 하고 옛 성터가 있다)과 읍의 뒷산 진산(부의 서쪽 4리에 있다. 옛 이름은 난봉산인데 나는 봉이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이다)에 이르기까지 성을 쌓고 웅거했으며, 죽어 인제산신이 되었다. 이 때문에 박난봉산이라 일컫고 옛 성터가 있으며, 난봉을 진산 아래에 장사지냈다고 전한다. 인제산 안에 정령이 아직도 있어 구름끼고 비오는 날이나 달 밝은 밤이면 병마가 달리는 소리가 골짜기에 진동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가까이 하지 못한다.

구전 그대로 박난봉이 인제산과 난봉산에 성을 쌓아 웅거했으며 죽어 인제산신이 되었는데, 조선 말기까지도 그 정령이 비오는 날이나 달 밝은 밤이면 말을 타고 달려서 그 소리가 무서워 접근을 못 한다는 것이다.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조선총독부, 1942)에는 “높이 3~5척, 폭 5칸, 둘레 300칸의 원형누지(圓形壘址)로서 … … 축성상태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곧 백제 때의 산성이란 것이다.

이 보고를 믿는다면 인제산의 건달산성은 이 땅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여기에 터를 잡았고 백제 때 토성을 쌓았으며, 고려 말에 박난봉이 중수했는데 오늘날 박난봉이 쌓았다고 전한 것이다. 『천조실록』 선조 26년 12월조에는 이 성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일에 전라감사 이정암의 장계에 도내의 산성을 손수 살펴보니 남원의 교통산

성, 담양의 금성산성, 순천의 건달산성, 강진의 수연산성, 정읍의 입암산성은 다 하느님이 설치한 험지입니다. 난을 만나 피환하는 데는 여기보다 뛰어난 데가 없으며, 그 가운데 입암산성이 가장 험절합니다. 옛성을 수축함에 비용과 인력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한 도(道)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관애를 작위하여 힘을 합해 파절(把截)한다면, 하도(下道)하는 도적이 감히 오래 몰아칠 수 없을 것이라고 대소 인민들이 모두 수축해 호남을 보장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건달산성은 호남의 오대산성에 든다. 그러나 지금은 안내판도 세우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다. 『항남악부』의 「혈천탄(血川歎)」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부의 남쪽 4리쯤에 건달산이 있는데 산 아래 작은 내가 있어 역동촌에 흘러들어간다. 물밀이 붉은 빛인데 마치 피와 같다. 그래서 ‘피내’라고 부른다. 세상에 전하기를 임진·계사년(1592~1598)의 난에 부인의 백성들이 건달산에 숨었다가 어지러이 도륙을 당했다. 피가 흘러 내에 이르니 냇물이 다 붉었다. 그래서 그뒤로부터 붉은 빛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건달산은 깊고 으스스하여 피난할 만한 곳이 있다. 그때 이변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임진·계사년에는 진주 이서에 발을 던지 못했으므로, 『천조실록』 권22, 선조 26년 8월조에 기록된 순천의 수좌(首座) 장예원(張禮元)이 관노 강원(姜元)·심한(深汗)과 동모하여 군량미 40여 섬을 몰래 끌어내고 창고에 불을 지른 사건을 말한다. 부경(府境) 안에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나 어지럽게 성 안으로 들어와 관고의 곡물을 훔쳐갔고 여가(閭家)와 관사(官舍)가 모두 불에 탔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민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륙당했을 것 같다.

서울 난봉산에서는 박난봉이, 인제산에서는 부인이 도끼를 던져 주고받다가 도끼를 떨어뜨렸는데, 거기가 옥천동의 고름장 모퉁이에 있는 소(沼)이다. 그래서 지금도 ‘도치소’라고 부르며, 인제동을 ‘역굴’이라 부르고 남산초등학교가 있는 데를 ‘역동촌’ 또는 역밭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상인제를 억곡(億谷) 또는 억만곡(億萬谷)이라 불러오다가 인제동 산47번지에 용마(龍馬)의 발굽이 바위에 찍혀 있고, 마을회관과 풍덕교 근방의 바위에도 용마의 발굽이 찍혀 있는 데다 인제산이 달리는 사슴형국이라서 ‘인제(麟蹄)’라고 이름했다고 한다. 상사면 비촌리에 있는 「도선암 중창기」에

산의 형상은 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찾는 것이고 읍의 맥은 달리는 사슴인지라 짐을 찾으려면 호풍(虎風)에 사슴이 엮드리니 읍기(邑基)가 진압될 것이 필시 분명하다.

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풍수 비보설에 근거하여 운동산을 호구(虎口)로, 인제산을 달리는 사슴으로 푸는 데서 마을이 기린형국이라 여겨, 기린 인과 말굽 제자를 써서 마을이름을 삼고 인제마을 뒷산이란 뜻으로 인제산이라고 한 듯하다. 원산(圓山)은 용당동 업동에 있는 산이며, 흔히 삼산이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산이 삼산은 아니다. 『천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원산은 부의 북쪽 6리에 있는데 세 봉우리가 있다. 광진은 근원이 둘이다. 한 줄기는 미초율령(현재 청소에서 황전 삼재로 넘는 재)에서 흘러나오고, 한 줄기는 구현(수리재·대구실재)에서 흘러나와 원산의 북쪽에서 합류하고 부의 동쪽 1리에 이르러 옥천과 합류해 용두포가 된다.

고 했으니 원산이 분명코 삼산이라 지칭하는 산이 아니다.

토박이들은 업동마을 앞의 강변을 ‘도메돌이 갭본’이라 부른다. ‘도메돌이’는 ‘돌다’와 ‘메’와 ‘돌이’의 합성어로 강물이 돌아흐르는 산의 뜻에 ‘돌’은 ‘도랑’, ‘고랑’의 뜻이니 이 뜻을 합해 ‘도메돌이’라 부른 것이다. 그리고 ‘도메’를 원산(圓山)으로 표기했다.

언덕 밑에서 찬물이 솟는 논에는 두렁을 만들어 찬물을 논 밖으로 흘려보내 따뜻하게 하여 논에 물을 낸다. 이렇게 찬물이 흐르게 하는 도랑을 ‘짓돌’이라 하고, 가을에 논에 물을 뺄 때 벼포기를 뽑아 도랑을 내는데 이 도랑을 ‘셋돌’이라 이른다. 그러므로 ‘돌’은 ‘도랑’이며, ‘도메돌이’는 원산 아래 물이 흐르는 도랑이란 뜻이다.

순천의 삼산은 인제산·해룡산·진례산을 이르는 말이지 결코 업동에 있는 산이 아니다. 진례산은 여천시에 있는데 어찌 순천의 삼산에 들겠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여수반도가 순천에서 분리된 지 100여 년밖에 되지 않으니 순천을 오늘의 순천시 지역으로 국한시켜선 안 된다. 광양, 여수 일대가 모두 순천에 속했다.

봉화산의 옛 이름이 성황당산이고 생목동에 성황사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성황신인 김충을 어느 뎨가는 생목동에 성화사를 짓고 제를 올렸을 것이므로 인제산·해룡산·성황당산을 삼산이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수는 어느 강을 지칭할까? 1498년 무오사화에 연루되어 희천과 의주에 귀양갔다가 1500년에 순천으로 적소(謫所)를 옮긴 김굉필과 조위가 노닐었던 임청대(臨淸臺)의 기문(記文)에 동계(東溪)와 서계(西溪)가 있다. 동계는 동천을, 서계는 옥천(玉川)을 이르는 말이다. 1565년에 옥천정사(玉川精舍)를 지은 뒤로 옥천이란 이름이 붙었다.

백제 곧 사평군 때는 이사천 근처 사평(무평)이 읍거였고, 승주 연해군 때는 서면 강청(江淸)이 읍거였다. 승평 때에 옥천·영옥·남내동 일대가 읍거였을 가능성을 두고 생각하면, 이수는 동천과 이사천을 두고 이르는 말일 수도 있다. 삼산이 있고 이수가 있으므로 중국의 강남지방에 빗대어 소강남이라 고려 말에 이름한 듯하다. 그래서 서주(徐州)에 있는 연자루(燕子樓)의 이름을 따서 순천읍성의 남문루에 그대로 붙였다.

고려 고종 때(1213~1259) 순천부사 손억(孫億)이 연자루에서 관기 호호(好好)와 깊은 관계를 맺은 기록을 보아 이때 이미 연자루가 세워져 있었고 순천을 강남이라 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강남은 마음의 고향이고 이상향이다. 제비의 고향이며 봄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조상들은 강남을 좋아했다. 강남은 중국의 양자강 남쪽지방을 뜻한다. 강소성(江蘇省)·안휘성(安徽省)·강서성(江西省)을 강남이라 지칭한다. 거기에 소주와 서주가 있는데 경치가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산수가 아주 고와 세상 사람들이 소강남이라 일컫는다.”고 했다.

《황남악부》의 「부유행(富有行)」에서는

인물이 부러하여 부의 제일 마을이 되었다. 그래서 그때 회자하는 가곡에 부가 소강남이라 일컬어진 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왔을 것이다.

라 하여 부유행(주암면 창촌)이 경치가 아름답고 사람들이 많아 소강남이라 일컫는다고 했는데 《황남악부》의 발문에서는

산천이 아주 곱고 인속이 변화하다. 그래서 소강남이라 이름했던 것이다.

고 기술해 ‘산천이 기려하다’, ‘인물이 부러하다’, ‘인속이 변화하다’ 등의 이유로 소강남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 언제부터 강남이라 불렀는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암사 사적비명병서」에

조계산은 날 듯 솟아 척개(拓開)함이 마치 항주의 천목산이 용이 날고 봉이 춤추는 것과 같다. 선암사는 그런 곳에 있다.

고 했고, 「동화사(桐華寺) 중창기」에는

소주와 항주의 영(靈)이 임여의 석실에 숨어 있었는데 타방의 퀘관이 문득 이렇게 동현(同現)되었다.

고 기술했다. 이를 보아 대각국사가 선암사를 중창하고 동화사를 창건하던 고려 선종 때 이 지방의 산천이 중국의 강남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하여 ‘소강남’, ‘강남’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것 같다. 요컨대 삼산은 인제산·해룡산·진례산이고, 이수(伊水)는 동천·옥천 또는 동천·이사천이며, 강남이라 부른 이유는 삼산·이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경치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고려 선종 때 대각국사가 이 땅에 주석하면서 강남이라 부르기 시작했을 것 같다.